

## SGI사의 O2 데스크톱 워크스테이션

SGI는 인텔칩에 기반한 고성능 데스크톱 시스템의 공격에 맞서 RISC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워크스테이션 제품을 선보였다.

신제품 O2 데스크톱 워크스테이션 계열은 고성능 UMA (Unified Memory Architecture)를 이용해 3D그래픽 이미지와 비디오처리를 통합했다. 가격은 32MB RAM, R5000 PC

180MHz 프로세서, 1GB 디스크 드라이브를 기본 사양으로 하는 시스템이 5천9백95달러이다. O2 시스템은 SGI의 인디 워크스테이션 계열을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SGI는 SMP기술인 S2MP (Scalable Sharedmemory MultiProcessor) 아키텍처를 선보였다. 슈퍼컴퓨터 전문업체인 크레이 리서치와 공동으로 개발한 S2MP는 단일 프로세서 시스템에서부터 128 프로세서 시스템

까지 폭넓은 확장성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SGI는 오리진 (Origin)이라는 확장형 서버 계열을 발표했다. 최저급인 오리진 200계열은 칩스의 180mhz r10000프로세서를 1개에서 4개까지 지원한다. 오리진200은 고급 워크그룹용으로 고안됐다. 오리진 2000계열은 180MHz칩스 R10000프로세서를 최대 8개까지 지원한다. 오리진2000은 부하가 큰 과학적 컴퓨팅용으로 고안됐다. 크레이 오리진2000 슈퍼컴퓨팅 서버는 오리진 2000과 동일한 구성 단위를 사용하지만 65개에서 1백28개까지 프로세서를 확장할 수 있다. 가격은 오리진 200계열이 1만1천3백95달러부터 시작하고 오리진2000계열이 2만9천9백달러부터 시작한다. 크레이 오리진2000시스템의 가격은 2백만달러 이상이고, 내년 여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세대 가요신청은 기다리지 않는다」**

지난날 우편엽서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라디오



가요신청은 이제 팩스, PC통신에 이어 삐삐신청이 등장했다. 최근에는 한글문자호출기를 이용, 며칠 전부터 엽서를 보내는 번거로움이나 전화, 팩스, PC통신에서 빈번했던 통화중때문에 짜증을 내지 않고도 사연과 신청곡을 바로 접수시킬 수 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SBS 파워FM의 「최화정의 파워타임」에서는 청취자의 신청곡 접수와 사연을 2월13일부터 서울이동통신의 비서서비스와 한글문자호출기를 통해 받고 있다.

한글문자호출서비스인 비서서비스의 경우, 일반전화나 PC통신에서 일어나는 통화중 현상이나 통화대기시간이 필요없고, 언제, 어디서나 말만하면 메시지를 호출기에 남길 수 있다는 것. 이 프로그램에 신청곡을 보내려면 호출번호 015-8335-1077이나 015-8336-1077을 호출한 후 안내멘트에 따라 4번을 누르고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한편 SBS 「최화정의 파워타임」은 이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거나 노래를 신청한 청취자중 추첨을 통해 전자수첩 겸용 한글문자삐삐를 보내 줄 계획.

공보처는 이를 위해 2월15일 허가지역을 고시한 후 2월 말쯤 사업자 모집공고를 발표하고 3월 15일부터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공보처는 한달여의 심사를 거쳐 4월 말경 최종 사업

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2차 허가지역은 성남·분당, 고양·파주, 과천·안양, 부천·김포 등 수도권 4개 지역과 각 도의 주요 도시를 포함해 십수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차 사업자 허가지역은 1차 허가 때와는 달리 광역화돼 수도권의 경우 25~30만 가구, 지방의 경우 15~20만 가구를 기준으로 분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62개 미허가 지역은 20개의 광역화된 지역으로 정리됐다. 이 지역에 사업자가 새로 허가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5% 이상이 케이블TV의 가시청권안에 들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2차 SO사업자 허가는 그러한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에 근거해 실시되기 때문에 기존 1차 지역의 SO들의 참여가 배제된다.

### 엘렉스컴퓨터사의 PDA '뉴튼 메시지 패드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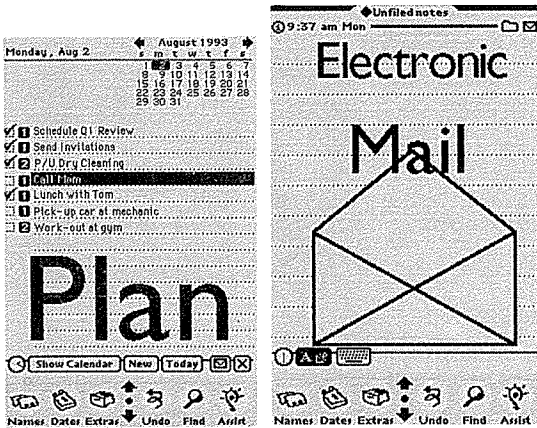
현재 발표된 개인용 휴대기기(PDA-Personal Digital Assistance)중에 최고 정상급에 있는 제품, 뉴튼130은 20MHz의 ARM 610 RISC프로세서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2.5MB의 내장메모리와 8MB의 롬을 제공한다. 엘렉스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유통점인 소프타임에서 최근 시판하기 시작한 이 제품은 특히 시간조절이 가능한 백라이트

(Backlight)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가로 7.2cm×세로 9.6cm의 무반사 스크린으로 주·야간 혹은 기타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사용 가능하다. 그 외에 38,000bps의 속도로 적외선 송·수신이 가능하며 PCMCIA Type2card 슬롯과 로컬톡422(LocalTalk 422) 및 RS0232와 호환되는 Serial Port를 제공한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자체 노트패드, 해야할 일 리스트, 전화번호부, 주소목록 등 개인 및 비즈니스 업무용 툴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포함된 Pocket Quicken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 회계업무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입력방법으로는 디지털 잉크, 출력 텍스트, 손으로 그린 그래픽 및 스크린상의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옵션으로 외부 키보드를 부착할 수도 있다.



▲ 소프타임에서 시판하기 시작한 애플사의 '뉴튼 메시지 패드 130'



공되기도 하며 검색엔진을 통해 별도로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다. 즉 패스트파인드는 여러 검색엔진을 통합해서 하나의 파일로 걸러주기 때문에 여러번 접속해야 하

는 번거로움을 더는 점이 특징이다.

뉴튼 메시지 패드는 1백30여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향상된 영문 필기체 인식을 및 아웃라이너(outliner), 팩스 및 전자메일 송·수신기능, 향상된 멀티태스킹기능 등이 있다. 노트패드를 이용하여 월, 주, 일별 활동사항을 계획하고 업무 순위 지정이 가능하며 자유로운 형식의 노트, 아웃라인, 리스트 및 전화번호 목록 제작이 가능하고 명함 포맷을 이용하여 학교, 친구 및 거래처의 이름과 주소 파일 편집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정보 분석틀 및 표준시간대, 계산기, 환율계산이 가능하나 유틸리티와 현금, 저축, 신용카드 등이 내장되어 있다. 가격은 부가세 별도 79만원.

소프트웨어다.

한글버전 운영체제와 호환되는 이 소프트웨어는 야후나 라이코스, 알타비스타, 익사이트, 인포시크, 마젤란, 웹크롤러 등의 검색엔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검색엔진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같은 내용이 중복적으로 검색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검색 요구에 따라 순서를 매겨 웹페이지에 리스트를 나열해 준다.

검색기능은 현재 브라우저나 운영체제에서 통합해 나오기도 하며, 공유 형태로 단편적으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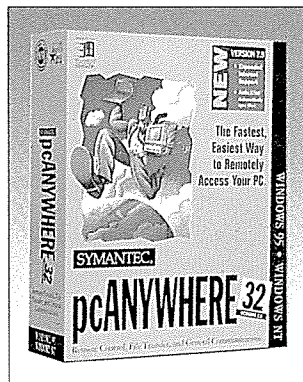
는 번거로움을 더는 점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패스트파인드는 GUI환경에서 운영되기에 매뉴얼을 읽으면서 배우기보다는 직접 PC상에서 사용하면서 습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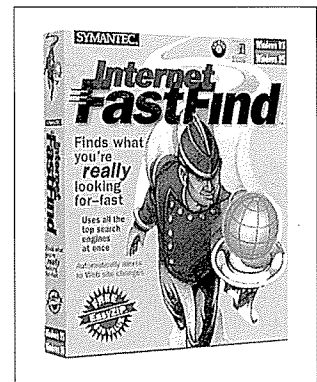
정보검색기능인 WebFind, 선호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변동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Notify,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는 Live-Update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인터넷 패스트파인드는 486급 이상, 8MB RAM, 8MB HDD, CD-롬 드라이브를

## 시맨텍사의 인터넷 검색용 'Internet FastFind'

최근 시맨텍에서 발표한 인터넷 패스트파인드 (Internet Fast-Find)는 인터넷 웹브라우저 기능을 결합해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해 주는



▲ 원격제어 소프트웨어 pcANYWHERE 32는 어디서나 사무실 PC에 접속해 제어할 수 있다.



▲ Internet FastFind는 웹 탐색 엔진 모두를 검색해 원하는 내용을 빨리 찾아준다

갖춘 시스템 환경에서 작동된다. 윈도 95와 NT 4.0을 지원하며, 익스플로러와 내비게이터에서 모두 작동된다.

### 씨게이트사의 디스크드라이브 '치타 패밀리'

씨게이트 테크놀로지사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전 속도를 제공하는 10,000-RPM회전 속도를 제공하는 9.1GB(모델 ST19101) 및 4.55GB(모델 ST34501)용량의 치타 패밀리를 발표했다.

10,000-RPM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디스크 드라이브, 치타 패밀리는 향상된 회전 속도로 데이터 액세스 시간을 대폭 향상시켰음은 물론 데이터 전송률을 현격하게 증가시켰다.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타의 인터널 포맷티드 데이터 전송률은 초당 15MB로 빨라졌으며 이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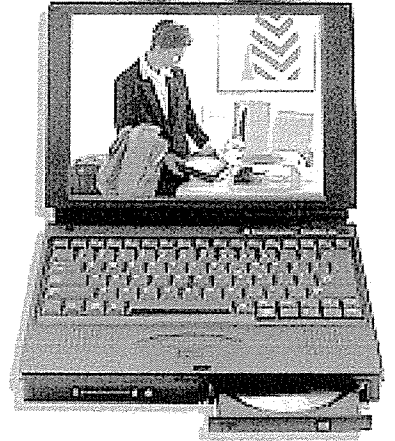
존의 7,200-RPM 디스크 드라이브에 비해 성능이 40%나 향상된 것이다.

10,000-RPM 회전속도로 치타의 평균 대기시간(Latency time)도 3m/sec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임베디드서보(embedded servo)기술 적용으로 탐색시간 또한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업계 표준 인터페이스인 고성능 울트라 SCSI와 FC-AL를 지원해 인터페이스 대역폭을 배로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당 최고 100MB의 전송률을 제공한다.

ST19101과 ST34501드라이브의 샘플은 올 1/4분기에 제공될 예정이며 양산은 2/4분기에 계획되어 있다.

### 한국 TI 노트북 '트래블메이트 6050'

한국TI는 최근 인텔 150MHZ



펜티엄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 '트래블메이트 6050'을 출시했다.

트래블메이트 6050은 2,7Kg의 무게와 서류가방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로 윈도 NT 워크스테이션 4.0과 호환 가능하다. 또한 MPEG비디오 영상 재생, 모듈러 6배속 CD롬 및 16비트 이중 오디오 등과 같은 응용을 위해 줌 비디오 포트 기술과 같은 멀티미디어 성능을 제공한다.

한편 TI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 칩을 발표했다. 현재 7포트 USB허브 제품인 TUSB 2070과 4포트 허브칩인 TUSB2040D의 견본이 나와있다. 허브 제품은 PC시스템 디자이너들이 PC를 모뎀, 프린터, 키보드, 마우스 등과 같은 주변 기기에 혹은 추가적으로 주변 기기가 필요한 경우 USB허브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도록 USB 접속포트를 제공한다.



▲ 씨게이트는 최근 회전속도가 1만RPM이며 용량이 9.1GB, 4.55GB인 치타패밀리를 발표했다.

### 삐삐 전송로 위성망으로 교체

무선호출사업자들이 교환기와 기지국을 연결하는 전송로를 기존 전용회선에서 무궁화2호 위성을 이용한 위성망으로 전면 교체한다. 2월7일 한국이동통신은 무선호출 전송로를 올해 말까지 위성망으로 완전 교체키로 하고 우선 제주지역의 전송로 교체작업을 완료, 2월8일부터는 제주도 전역에서 위성망에 의한 무선호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이동통신이 구축한 위성전송시스템은 이 회사가 94년 2월부터 20억원을 투입해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현대전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디지털 전송방식을 채택해 기존 아날로그방식에 비해 혼신 및 잡음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이동통신측은 “지난 1년간의 시험결과 무선호출 수신율이 99%에 이르는 등 품질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돼 상용서비스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제주지역에 이어 3월에는 부산, 경남, 4월 충청북, 5월 수도권 등으로 위성전송로를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무선호출사업자인 나래이동통신과 서울이동통신도 무선호출 전송로를 위성망으로 바꾸기로 하고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래이동통신은 중심국 1개소와 단말국 4개소, 기지국 12개소를 대상으로 한 시험망 구축을

지난해 12월 완료한 데 이어 3월 말까지 단말국 80여개를 추가설치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5월부터는 전송로를 위성망으로 교체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이동통신도 4월부터 위성망에 의한 무선호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일정을 수립하고 45억원을 투자,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무선호출사업자들이 전용회선 대신 위성망을 이용한 전송로 구축작업에 일제히 나선 것은 위성망이 전용회선에 비해 유지보수가 쉬운 데다 올 하반기에 선보일 고속무선호출 등 신규 서비스 제공에 위성망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산간, 오지에 위성이용 서비스

국제이동위성기구(인말세트) 위성을 이용, 사막이나 깊은 산속 등 오지에서도 음성 팩스 데이터를 주고 받는 서비스가 국내에서 시작됐다. 한국통신은 지상 3만6천Km 상공에 떠 있는 인말세트 위성을 통해 세계 어디서나 음성과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미니M 서비스」를 2월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대용 단말기로 위성을 통해 음성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이러한 서비스는 국내에선 처음. 내년 말부터 실시될 저궤도(1천Km 정도) 위성서비스 전단계인 이 서비스는 아직 초보단계지만 지상 3만6천Km 상공 정지궤도

위성을 소형단말기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한게 특징이다.

여기에 이용되는 휴대용단말기(미니M 단말기)는 인말세트가 개발했는데 노트북 형태 제품으로 가격은 2백50만~4백만원 정도. 케이스가 안테나 역할을 하며 무게는 2~3Kg, 통신료는 분당 2천원 정도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현재 국제전화나 국제팩스 이용료가 분당 1천원 정도라 이보다는 비싸지만 산간, 사막 등 오지에서도 송·수신이 가능하게 장점”이라며 “가입자가 늘면 단말기 가격과 통신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측은 저궤도위성서비스가 실시되는 내년 하반기까지 가입자가 5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수요자는 오지 시추선 선박 근무자나 운송 및 건설업체 근무자 등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말세트는 주로 선박-지상간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그동안 단말기 무게문제로 휴대용 서비스는 실시하지 못했다.

이 서비스는 2.4킬로bps급(초당 전송비트) 속도로 데이터나 팩스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데 인말세트위성과 일본 또는 네덜란드 지구국, 지상망을 통해 초기서비스가 이뤄진다. 한국통신은 이용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 전용기지국을 금산지구국에 설치해 내년부터 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㉓